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의 표상과 탈식민적 문학론의 단서들

- 이인직 · 이광수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정 실 비**

요약

이 글에서는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의 표상을 고찰함으로써, 박경리가 제국주의와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얻고자 했다. 박경리는 실존인물인 이인직과 이광수, 허구의 인물인 임명빈과 이상현의 운명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문학의 역할을 사유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우선, 박경리는 이인직을 문학청년 임명빈과 대위법적으로 배치하여 이인직의 몰주체적인 모방으로서의 문학을 비판하고, 동시에 그러한 모방조차 해내지 못하는 임명빈의 무기력함을 비판한다. 또한, 박경리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표면적으로는 제국에 저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국에 타협했던 모순된 담론으로서 재조명한다. 이광수는 소설가 이상현과 대위법적으로 배치되는데, 도피적인 댄디스틴 이상현의 시각을 통해서 이광수 문학의 계몽성이 비판된다. 그러나 이상현은 계몽문학의 한계를 넘어설만한 문학을 창작하지 못하며, 소설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낙오한다.

박경리는 이인직과 이광수를 통해서 제국주의 권력과 문학의 공모를 보여주는 한편, 임명빈과 이상현의 실패를 통해서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적인 문학적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국주의 권력의 억압을 가시화한다. 박경리는 식민지 문인들의 표상을 통해, 문학의 역할은 추상적인 담론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며, 문학자의 역할은 인간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박경리는 작가 자신을 닮은 문학소녀 '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7162)

**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의'를 통해 식민지 규율 권력으로부터 탈주하여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글쓰기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박경리는 문학소녀의 습작이라는 실천 속에 제국주의와 공모하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을 심어두었다. 이처럼 박경리는 자국 문학이 식민 권력과 공모하거나 식민권력에 의해 좌절되었던 흔적들을 되살려내고 들춰낸다.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서술을 되짚어보면서 『토지』의 동력 중 하나가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고통을 기억하고 망각에 저항하려는 의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제국주의, 식민지 문인, 사회진화론, 신소설, 민족개조론

목차

1. 문명개화담론에 숨겨진 핏자국과 나쓰메 소세키의 옷자락
2. 제국의 모방으로서의 신소설과 문학청년의 조로-이인직과 임명빈의 경우
3. 모순으로서의 민족개조론과 댄디스트의 낙오-이광수와 이상현의 경우
4. 자유를 향한 글쓰기와 문학소녀의 성장
5. 맺음말

1. 문명개화담론에 숨겨진 핏자국과 나쓰메 소세키의 옷자락

박경리의 『토지』에는 실존했던 동서고금의 문학자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된다. 그런데 이 문학자들의 이름은 『토지』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더해주는 효과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경리가 과거의 문학 작품을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다시 읽어나가기 때문이다. 가령, 토지 10권에는 서의돈과 선우신이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나쓰메 소세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염통을 꺼내 먹을 놈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가 어디 빠다관지 핏대

세우는 꼴이 가관이고, 한수 더 떠서 나쓰메 소세키[夏日漱石]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그 군국주의, 아아 참 자네가 존경해 마지않는 영문학자요 대 소설가였던가?”

“좀 망발인데요? 선생님.”

“깃발 치켜들 줄 알았다.”

“군국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어? 만철(滿鐵)의 총재(總裁) 나카무라(中村)의 초청을 받고 그자가 조선 만주를 여행하고서,”

“여행했다고 반드시,”

“나카무라의 초청도 좋고, 느긋하게 서울서 묵고 간 것도 좋고, 돌아가서 쓴 글도 좋다 이거야. 군국주의건 뭐건 다 좋다 그 얘기야. 조선놈 학생이 심취하는 꼴이 우습거든. 그자가 쓴 소설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파헤쳐본 것밖에 더 있어? 늘상 구경꾼 같은 그자의 글인데, 그 자신이 이기적 인간이었다 그것 이외 뭐가 있어? 일본놈들 죄악에도 아불관(我不關)이요 내 옷에는 핏자국이 없다,”

“그 사람은 정치가도 군인도 아닙니다. 소설가며 영문학자일 뿐입니다. 외궂코 나가는 예술가를 두고 군국주의 운운하시는 것은 지나치고, 아불관은 예술가들의 속성 아닐까요?”

“그러냐? 예술가는 양심에도 아불관이란 말이나? 적어도 일본인들의 치부는 느껴야, 양심 이전의 감정문제다. 차라리 영국의 키플링같이 들내 놓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편이 낫지.” (10;268-269)¹⁾

인용문의 대화는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조선 지식인들에 대한 서의돈의 비판으로 시작된다. 이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서의돈이 나쓰메 소세키와 군국주의의 관계를 예각화하는 부분이다. 서의돈이 볼 때, 군국주의를 찬양하지는 않

1) 박경리, 『토지』(1~20), 마로니에북스, 2012; 이하 『토지』의 권수와 면수를 본문에서 ‘권:면’으로 표기한다. 또한 인용문의 밑줄은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았지만 비판하지도 않았던 나쓰메 소세키는 자신의 옷에 핏자국을 묻히지 않고 군국주의를 방관한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선우신은 나쓰메 소세키가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군국주의와 소세키를 분리해서 생각하고자 하지만, 서의돈은 ‘만철 총재의 초청에 의한 여행’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짚어내면서 소세키의 방관적인 태도를 문제삼는다.

이처럼 『토지』에서 박경리는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되짚어내는 ‘맥락읽기’를 통해서 권위 있는 문학 작품을 다시 읽어나간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식민주의, 인종적 억압, 제국주의적 종속과 같은 오래되고 아비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시와 소설을 연결시켜 사유하면서,²⁾ 문학 작품을 “문화와 제국 사이의 관계의 일부”³⁾로 간주하고, 문학작품이 “단순히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형성에 명백히 일익을 담당”⁴⁾했던 국면들을 되짚어나간다. 박경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국면이다. 박경리는 『토지』에서 제국주의 권력과 지식의 담합에 의한 담론 생산의 문제를 날카롭게 묘사해나가면서, 식민지 문학에 대한 맥락 읽기와 다시 읽기를 수행한다. 탈식민화 과정과 식민 유산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릴라 간디에 의하면, 탈식민화 과정에는 식민 과거를 망각하려는 욕망이 수반되는데, 탈식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 과거를 기억하고 따져 묻는 일종의 이론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⁵⁾ 식민 아카이브는 식민 지배와의 대면이라는 특수한 압력에서 생긴 여러 형태의 지식과 행위를 보존하고 있는데, 포스트식민주의는 식민 아카이브로부터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인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야기를 들춰내는 작업을 수행한다.⁶⁾ 본고에서는 이러한 포스트식민주의의 방법론을

2)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21, 24면.

3) 위의 책, 36면.

4) 위의 책, 25면.

5) 릴라 간디 저,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17면.

6) 위의 책, 17면.

원용하여, 식민지 시기 문학사를 다시 따져 묻는 박경리의 시각과 그 과정에서 예각화되는 문명개화담론과 식민지 문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토지』에 언급된 실존 문인 중 이인직과 이광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박경리가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문명개화담론을 문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한 문학자가 이인직과 이광수이기 때문이다. 이인직과 이광수는 『토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박경리가 창조해 낸 허구의 인물들과 대비되며 자주 이름이 거론된다. 특히 이인직은 문학청년 임명빈과, 이광수는 소설가 이상현과 대비된다. 임명빈과 이상현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로, 함께 문학잡지를 내기도 한 인물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인직과 임명빈, 이광수와 이상현에 대한 서술을 겹쳐 읽는 방법을 통해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의 표상을 분석하고, 박경리가 제국주의와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얻고자 한다.

『토지』에 대한 연구사는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왔는데,⁷⁾ 『토지』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대한제국이 시작되던 1897년부터 조선이 해방되는 1945년까지이기 때문에, ‘식민지’, ‘일본’, ‘민족’, ‘탈식민’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토지』에 나타난 일본론/일본인/일본인식에 대한 연구⁸⁾ 및 탈식민주의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⁹⁾를 통해, 제국 일본을 바라보는 박경리의 시각과 서술 양상

7) 『토지』 연구사에 대해서는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16.1, 한국근대문학회, 2015”에서 시기별 연구 경향의 변화가 상세히 검토되었다.

8)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일본론」, 『현대문학의 연구』 24, 현대문학연구회, 2004. 11. 이상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토지속의 일본, 일본인, 일본론」,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

김용의, 「박경리의 토지와 일본인식」, 『일본어문학』 51, 한국일본어문학회, 2011.

이정숙, 「『토지』에 나타난 일본」,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9) 권은미, 「박경리 『토지』의 탈식민적 상상 연구 —소설적 형상화와 그 양가성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 구체적으로 탐구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이어 받으면서,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의 표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박경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지식인 계층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¹⁰⁾ 이인직과 이광수를 비롯한 식민지 문학자의 표상 방식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문학사 서술에서 이인직과 이광수는 대일협력행위라는 명백한 정치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각각 신소설과 근대소설의 개척자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근대소설사의 중요한 인물들로 규정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공식적인 문학사 서술 방식과 차별화되는 박경리의 서술 전략과 표상방식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경리의 탈식민적 문학론을 재구해보고자 한다.

2. 제국의 모방으로서의 신소설과 문학청년의 조로(早老)-이인직과 임명빈의 경우

1862년에 출생한 이인직은 1900년에 관비 유학생이 되어 도쿄정치학교

이미화, 『박경리 토지와 탈식민적 페미니즘』, 푸른사상, 2012.

10) 이상진, 「박경리의 『土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최지선,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존재방식과 욕망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혜원, 「박경리 『土地』의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최유희, 「노동과 직업을 중심으로 본 『토지』의 여성 인물」, 『배달말학회』, 2004.

김은경,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굴절의 원리와 인물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박혜원, 「박경리 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土地』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회』 2, 구보학회, 2007.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에서 수학했다. 러일전쟁 때에는 일본군의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했으며 1907년에는 이완용의 비서로 직무를 수행했다. 이인직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정립하게 된다. 이인직의 사회진화론 수용 과정에 대해 연구한 함태영에 의하면 사회진화론은 이인직이 “친일의 길을 걸은 파탄된 지식인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논리”였다.¹¹⁾ 함태영은 이인직이 사회진화론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중시하는 사회유기체설을 받아들였고,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개개인들은 국가를 위해 최대한 그 직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일제의 시책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¹²⁾

박경리는 이러한 이인직의 비틀린 논리와 삶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토지』에서 이인직의 이름은 6권 4장의 임명빈과 서의돈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인직의 이름을 먼저 꺼내는 인물은 서의돈인데, 『토지』에서 서의돈은 ‘대추씨 같은 몸집에 배짱 하나 두둑’하고 상대를 막론하고 ‘당돌하게 이론으로 공박하여 상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식견을 지닌 호걸로 묘사되는 인물이다. 임명빈은 역관 임덕구의 아들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며 번역일과 소설 쓰기에 관심을 지닌 인물이다. 임명빈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 계층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문명개화담론을 추종하는 인물은 아니다. 임명빈은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저희들 미신은 뒤로 감추고서 야만이야, 미개다 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빈은 『토지』에서 주어진 조건에 비해 실천의 능력이 결여된 무능력한 지식인으로 일관되게 묘사된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인직이 어떤 식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11)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 관비유학 이전 행적과 『都新聞』 소재 글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0, 2006, 현대소설학회, 12면.

12) 위의 글, 11-12면.

“청루 왜년한테 끌고 갔을 게야. 으하하하하하…….”

“지랄 같은 소리 또 늘어놓는구먼.”

임명빈이 건성으로 거든다.

“자넨 잠자코 있어. 지랄 같은 소리 아니한다 해서 왜년을 데리고 사는 그 누구더라? 이름 한번 유명하지. 이인직, 지금은 경학원 사성(司成) 이 인직보다 위대할 것 한 푼 없대구.”

“이인직은 왜 들먹이누.”

“자네 동업자니까.”

“내가 언제 벼슬 살았었나? 역관직에 있었던 말이야? 동업자는 무슨 놈의 동업잔구?”

“엇비슷한 처지니까 하는 말일세.”

“엇비슷하다니?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놈 수족 노릇을 내가 했더라 말 이야?”

“그런 일 아니했다고 뽀내본들 자네 키가 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야. 다 같이 왜년이 퍼주는 하숙밥을 처먹고 왜글 나부랑일 배워왔으니 엇비슷하다는 게고, 한 놈은 너무 똑똑해서 나라 팔아먹는 데 한 다리 낀 것도 사실이나 신소설을 씌네, 연극을 합네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것을 흥내나마 낸답시고, 험데 자넨 뭘 했지? 매일 쌀가마나 축내는 밥벌레 아니었나 말이다.”

“신소설이고 연극이고 그거 다 무슨 소용이야. 지 부모, 지 나라 파, 팔아먹는 개새끼가,”(6;258-259)

박경리는 서의돈의 입을 빌어 이인직의 과거와 현재를 요약적으로 전달한다. 서의돈의 말을 통해 이인직이 역관직에 있었고, 이완용의 수족 노릇을 하며 매국을 했으며,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여 경학원 사성으로 있다는 점이 독자에게 전달된다.¹³⁾ 서의돈은 일본유학을 다녀온 임명빈의

13) 경학원은 1887년에 설립된 성균관의 개칭된 이름으로, 1911년에 친황의 하사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이곳에서는 황민화를 목적으로 한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다.

처지를 이인직의 처지에 빗대면서 이인직의 이름을 꺼낸다. 서의돈은 이인직에 대해서 ‘나라 팔아먹는데 한 다리 낀 것도 사실이냐’ 일본에서 배운 것을 모방해서 신소설을 쓰고 연극을 하는 자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서의돈의 평가는 이인직의 문학적 성취를 고평하거나 문학적 성취를 빌미로 친일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의돈이 보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인직은 흉내내기 수준의 예술을 하고 있고, 임명빈은 그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서의돈의 말을 들은 임명빈은 자기 부모와 나라를 팔아먹으면 신소설이고 연극이고 소용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방어해 본다. 궁극적으로 이인직과 임명빈의 대비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일본 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조선 지식인 계층의 현실이다. 박경리는 실존 인물 이인직과 허구 인물 임명빈을 대위법적으로 배치하여, 유학과 지식인 계층의 몰주체성과 무능력이라는 국면을 또렷하게 가시화한다.

나아가 박경리는 서의돈과 임명빈의 대화를 통해서, 이인직의 삶과 문학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독자를 이끈다. 박경리는 이인직의 신소설과 신연극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는다. 박경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인직의 개인사, 즉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퍼주는 밥을 먹으며 유학하고, 이완용의 수족 노릇을 하고, 일본 여자와 함께 살고, 경학원 사서를 하고 있는 이인직의 개인사다. 박경리는 이처럼 이인직의 개인사와 문학사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이인직의 문학적 성과를 ‘대일협력’이라는 맥락과 단단히 결합한다. 또한 대화에서 사용된 이인직을 가리키는 비속어들(‘놈’, ‘개새끼’)은 공식적인 역사 서술 및 문학사 서술에서는 가시화 되지 않는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동시대 조선인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창작방법을 통해, 박경리는 역사서술이 다루지 않는 영역을 문학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한편, 이인직에 대한 서술은 7권에서도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임명빈

과 서의돈은 소설가라는 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서의돈은 이번에도 임명빈을 이인직에 견주는데, 임명빈을 비꼬기 위해 ‘그새 이인직일 따라다녔나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임명빈은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이거 참말 말 늘었네? 그새 이인직일 따라다녔나?”

이인직(李人植)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의돈의 저의를 아는 명빈은 한마디쯤 실토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이야기꾼 한번 되어볼까 싶어서…… 목하 심사숙고 중이라구.”

“기가 차네. 살다 보면은 서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던가? 허허어…… 뭣이 어찌구 어째? 이야기꾼?”

“이야기꾼이 어때서?”

“아바위꾼도 난감불락(難攻不落)일 터인데 허허허허…… 이야기꾼이라?” 명빈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심각한 토론으로 들어갈 준비인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별수 없는 거라구. 겸양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꾼이라 하기는 했으되 소위 그 소설가라는 게 얼마나 도도한 직업인지 알기나 아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말할 것 없는 일이고 바다 건너 일본의 실정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처지가 고관대작 유가 아니라구. 내 농담하는 것도 아니구 일시적 생각도 아니구 단단히 결심을 했어. 우선 시작은 번역부터 해보려고 해. 다행히 일본말엔 자신이 있고 남의 나라 좋은 소설들을 골라서 시작해볼 참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선 진작부터 해외의 문학작품들이 번역되어 널리 소개돼 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 좋은 거를,”

“경사났구면.”

“남의 얘기 끝까지 듣기나 하구서 말하라구. 나는 아무튼 상당히 신념을 굳혔다, 그 얘기부터 하고 싶은 거라구. 독립운동도 좋구 교육사업도 좋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남을 알구 나를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야. 생각을 해보라구.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이야 별문제겠으나 글줄 읽는 사람이면은 위아래 부담없이 읽혀지는 게 소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몇몇 지식들이 새로운 문명을 두고 왈가왈부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 일반대중이 짧은 시일에 눈을 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라구. 우물 안 속에서도 한 권의 소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풍물이며 새로운 사상, 그네들의 생활방도 종교 윤리관을 짚 훑을 수 있다면은 그런 작품의 소개란 상당히 시급한 일일 게고 몇 사람은 선구자가 있어야잖겠어? 물론 지금까지의 얘기는 번역하는 일인데 그런 다음,”

“관두어.”

“이거 참, 침침절벽(沉沉絕壁)이군그래.”

“관두란 말이야. 뭐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명? 소설이란 걸 가지고 전 달을 한다구?”

“그렇지 않구?”

“이봐 명빈이. 이야기란 건 말이야, 단군 할아버지 적부터 있어온 게야.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개명을 했구. 자네 같은 보리죽 대가리 때문에 벌어먹을! 그래서 개명 소리가 자꾸, 자꾸 나오는 게야. 번역이니 뭐니 하니까 하는 얘긴데 대포나 군함 만드는 서적이면 모를까 그까짓 왜나막신 소리가 나구 양고기 누린내가 물씬 나는 그따위 사상이고 개나발이고 일어어! 눈깔이 두 개, 입 코 있고 두 짝 귀가 있고 두 발로 걷는 사람의 새끼면은 다야, 다 옛날 고깃적부터 머리 싸매고 꿩꿩거리며 할 얘기 다 해냈는데 그까짓 양고기 누린내 나는 것들 새삼스럽게, 아서어. 그만두란 말이야. 그렇잖아도 자네 대가린 남보다 무거워서 뛰기가 불편한 터수에,”(중략)“임명빈은 이인직에 따라갈려면 허리 굽는다구.”(7:357-360)

이 장면에서 명빈은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임명빈의 관점에서 소설이란 ‘나를 알고 남을 알 수 있는 방법’ 이자, 새로운 문명과 사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임명빈은 이를 위해 일단 외국소설을 번역하고, 그 뒤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 임명빈의 소설관에는 근대 초기 문명개화 사상을 수용하여 계몽주의적 문학을 전개했던 근대 초기 문인들의 소설관이 반영되어 있다. 위 장면에서 임명빈과 비교되는 이인직 역시 문명개화담론에 근거하여 신소설을 창작한 작가다.

이인직 소설에 나타난 문명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한 유봉희에 의하면, 이인직은 계서적 문명론과 식민제국주의적 성격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소설을 창작했다. 가령, 『혈의 누』에는 문명이라는 지향점으로 향하는 강박증이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¹⁴⁾ 『귀의 성』 역시 당대 사회 현실을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의 장으로 보여주기 위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¹⁵⁾ 임명빈의 문학관은 이처럼 당시 소설이 문명개화담론의 도구로 기능하던 분위기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의돈은 소설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문명을 전달하겠다는 임명빈의 생각을 반박한다. 서의돈의 관점에서 소설은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야기’란 단군할아버지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의돈의 관점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사상과 문명에 의해 개명되어야 할 대상 역시 아닌데, 그 이유는 조선인들은 이미 고조선 시절부터 개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의돈은 ‘이야기’를 근대소설로 한정하는 서양중심주의적 관점과 고대를 ‘미개’의 시대로 보는 진화론적 시간관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반론을 통해 서의돈은 역사를 진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진화론적 역사관과 소설을 문명개화담론을 설파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계몽주의적 소설관을 흔들고자 한다. 박경리는 서의돈의 발화를 통해서 당대 문학담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여, 서양중심주의-근대주의-사회진화론에 근거한 계몽주의적 문학론의 유효성을 따지고 있다.

14) 유봉희,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6면.

15) 위의 글, 162면.

박경리의 관점은 박경리 고유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경리는 과거는 현재보다 열등하며 역사는 점차 진보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진화론적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역사는 번성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흘러간다는 역사인식을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꾸준히 제시해왔다. 가령 『토지』에서 작중 화자는 식민지 시기를 ‘정신문화의 시대에서 물질문명의 시대로의 전환기’로서 바라보면서도, 그 전환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작중화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고 있는 자는 또 갈 것이요, 가고 있는 자는 다시 올 것이다.(…)인간존엄을 찾게 될 후일 사가(史家)는 이 시대의 승리를 영광의 승리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배를 치욕의 패배라 하지 않을 것이다.”(4;65)라고 예언자적 태도로 서술한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사가’의 관점은 박경리 자신의 관점과도 통한다. 박경리는 역사를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며 순환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박경리는 한 에세이에서 “무너지면 새로운 것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며 새로운 창조, 분명 정점이 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오늘과 같은 말기현상에 조우했고 새로움으로 방향을 전환해왔습니다”¹⁶⁾라고 말하기도 했다.

1916년 이인직은 생을 마감한다. 그렇다면 임명빈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임명빈은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박경리는 임명빈이 소설가로서 성공하는 서사 대신 소설가 되기에 실패하는 서사를 마련해두었다. 임명빈은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고 ‘문학청년적 기질은 벗어던지지 못한’(11;27) 중학교의 교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현실과 싸워내지 못하고 교육자라는 방패 뒤에서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했다는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시름시름 병들어간다. 그를 병들게 만든 것은 동생 명

16) 박경리,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2003, 132면.

회를 조찬하에게 시집보내고 그 덕에 ‘침략자의 두호를 받는 계층이 설립한 학교에서 풍설을 피하며 있었다는 치욕감’이었다. 박경리가 임명빈에게 일관되게 부여하고 있는 속성은 ‘무능력함’, 즉 ‘실천의 결여’다. 임명빈은 민족의식이나 반일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행동이 없는 생각’으로 일관한다. 임명빈의 이러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경리는 병들어가는 임명빈을 ‘조로(早老)한 인물이자 ‘산송장’으로 묘사한다.(18;13) 서의돈, 유인성, 김길상, 선유신이 예비검속령으로 수감되었을 때, 임명빈은 수감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으로 ‘몸이 쪼동같이 부어서 산송장이 되어버린다. 박경리는 명희의 시선을 통해 임명빈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삶의 의지가 마모되어 없어진 사람”으로 그려낸다. 임명빈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회고한다.

“나는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젊은 시절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의지대로 한 일이 거의 없었다.” (중략) “비겁하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내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었어. 나는 청년 시절 시인이 되려고 결심했지. 그러나 나는 시인이 못 되었다. 작가가 되려고도 했고 평론가가 되려고 결심도 해보았다. 나중에는 문예부흥을 위해 잡지를 하기로 했지. 그러나 그것은 무참한 실패였다. 왜 그런지 아나? 내가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지에 능력이 따라주지 못한 때문이야. 이테올로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어. 내 의지에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단 한 군데 쓸모가 있었다면 일회용 폭탄, 그것이야.”

“지금 연세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야말로 영원한 문청이시군요.” (18;13-14)

임명빈의 자기 회고에는 실패한 문청의 자조와 자학이 농도 짙게 담겨 있다. 한때 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던 임명빈은 시인, 소설가, 평론가, 잡지출판인 중 그 무엇도 되지 못

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명희는 명빈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한 세대의 종언”을 강하게 느낀다.

산으로 떠나는 명빈의 병든 물골을 보면서 명희는 이들 세대의 종언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감옥에 유폐되었거나, 친일파로 전락되었거나 해외로 탈출했거나 혹은 낙향하여 숨어버렸거나 아니면 칼끝 같은 정세를 관망하며 불안하게 사업체를 붙들고 있거나, 어쩔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 이들의 세대, 젊었던 한철 의기양양했으며 비분강개하고 3.1운동의 중추세력이었던 이들의 세대,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난 것을 명희는 새삼스럽게 실감하는 것이었다. 개찰구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는 최상길, 동경까지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왔건만 그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중략)하기는 무위하게 보낸 세월이 임명빈의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능했던 것도 어디 임명빈만의 몫이겠는가. 조선의 세월 그 자체가 무위했으며 무능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소리지를 땅은 어디있었으며 주장할 연단은 어디 있었으며 터전에도 말뚝 박고 줄 쳐서 내 것 만들 권리는 없었다. (18:128-129)

명희는 3.1운동의 중추세력이었던 세대의 쇠락과 종언을 개개인의 의지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조선의 식민지 시기 그 자체가 무위하고 무능한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박경리는 명희의 시선을 통해 독자로서 하여금 3.1운동의 중추세력이었던 세대의 씩씩한 종언을 지켜보게 만드는 동시에,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는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을 전경화한다. 이처럼 박경리는 이인직과 임명빈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시기 문인들이 걸어간 갈라진 길을 보여준다. 이인직은 제국주의적 문명개화담론을 설파하며 제국주의 권력과 공모하고 제국을 모방한 인물로서 재현되며, 임명빈은 식민지 인텔리의 무력한 모습과 그 무력함을 가중시키는 식민지 현실의 중력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재현된다.

3. 모순으로서의 민족개조론과 댄디스트의 낙오-이광수와 이상현의 경우

이광수에 대한 언급은 이인직에 대한 언급보다 더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박경리가 특히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다. 『토지』에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비판되는 부분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훌륭한 개명과 지식인들, 일본물 마시고 서양서 온 기독교에 목욕한 사람들, 미신타파를 외치고 민족개조를 외치고 조선인을 계몽하려고 목이 터지는 사람들, 미신타파하면 땅을 찾고 수천 년 내려온 조선의 문화를 길바닥에 내다 버려야 땅을 찾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만하면 대장부 살림살이, 대신 사탕 빨고 우동 사 먹어야 땅을 찾을 것이던가, 사실은 긴구치*나 하마키*를 피우는 족속, 금종이 은종이에 쓴 과자 먹는 족속, 우리 것을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족속 때문에, 그들 때문에 조선민족은 말살 될지 모른다.(13;16)(밑줄은 인용자,이하 동일)

2) 파괴하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그런 자들이 강자다, 그런 생각에 중독된 식자들에겐 그야말로 허황한 얘가지요. 사실 우리 조선사람들 머리통 속에 일본은 강자다, 하는 관념이 고약같이 늘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구습을 타파하라, 기존 가치를 모조리 때려 부수자, 무용지물, 망국을 초래한 것들, 고루하고 미개하며 변변한 총 한 자루 없는 문명 부재의 상태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라, 수치스런 과거를 불식하지 않고 고질적인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눈을 떠라, 양양한 바다 건너 찬란한 문화를 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미개하고 몽매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리, 보자보자하니 어느덧 애국 애족하는 광대들 구호는 이 땅에 발붙이려 했던 그 시절의 구호와 흡사해가고 있

있더라 말입니다. 해서 민족개조론이 나오고 해피한 신종론도 나오고, 참 말 웃기는 일들이지요. (13;389-390)

3)그들이 지니고 온 지식의 정체는 내 것을 부수고 흔적을 없게 하려는 것, 소위 개조론이며 조선의 계몽주의였다. 부지불식(不知不識)의 경우도 있었겠으나 동경유학생과 기독교와 일본의 계몽주의 삼박자는 잘 맞은 셈이었다. 일본은 숨어서 어떤 미소를 머금었을까? 주권과 강토는 이미 그들 수중에 있는 것, 내용이 문제 아니었을까. 창조의 활력인 사고와 관념과 사상, 즉 혼의 산물인 유형 무형의 것들을 부수어내고 공동(空洞)을 만들기만 한다면 일본은 손 안 쓰고 코 푸는 격, 그 텅 텅 비어버린 곳마다가 괴상한 현인신이며 만세일계(萬世一系)를 집어넣고 꺾꺾 눌러다져놓는다면 조선민족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 모, 최 모, 그들 추종자들이 계몽주의 가치를 높이 쳐들고 눈가림의 두루마기 점잖게 입고 우국지사로서 거룩할 때 북만주 설원에서는 모포 한 장에 의지하고 잠들었을 독립군.(17;303)

4)물론 그들은 잘해보자고 한 일이겠으나, 일찍이 눈을 떠서 수천년을 내려온 것이라면 그 세월이 어찌 헛되게 갔을쏴가. 경험을 남기고 갔을 것인즉, 경험은 쌓이는 것, 그것들을 깡그리 물어버리고 없이하자, 그것만이 살길인 양, 황당하고도 황당하도다! 되어 있는 밥 잊어버리고 언제 꼬부랑 글씨 배워서 새 밥을 짓누, 내 것을 모멸하고 부수면서 독립운동을 해?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이어야 독립운동도 되는 거지.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대표격이 이 아무개인데, 그자가 독립운동을 안했던 것도 아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가? 당연히 갈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게야. 하루아침에 변절한 것은 아닐세. 내 것을 버려라, 버려, 깡그리 버려야만 우리가 산다, 거러던 자가 어찌 끝내 독립지사로 남으리. 결국 본받아라, 본받아라 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겠는가. 당연한 귀결이지. 소위 그 뭐가,“ 하다가 해도사는 잔기침을 했다. (18;447)

박경리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나 작중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민족개조론을 비판한다.1)에서 작중화자는 민족개조론을 조선 문화를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논리로 규정한다. 2)에서 남천택은 문명부재의 상태에서 탈피할 것만을 외치는 민족개조론을 비판하고, 사회진화론의 ‘강자’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남천택은 강자를 ‘다스리고 이룩하는 자’로 재정의하면서, ‘파괴하고 정복하는’ 제국주의를 비판한다. 3)에서 박경리는 송관수의 관점을 통해 이광수와 최남선을 우국지사 행세를 한 자들로 규정하고, 계몽주의에 토대하여 주창된 민족개조론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4)에서 박경리는 해도사의 목소리를 빌어 이광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해도사에 의하면 내 것을 모멸하고 부수면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내 것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는 결국 변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리는 해도사의 목소리를 통해 진보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믿음을 반박한다. 해도사의 관점에서 역사는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이다. 해도사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민족개조론을 주장했던 이광수의 논리를 반박한다. 이상의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 박경리는 등장인물이나 작중 화자의 입을 빌어 민족개조론의 이론적인 토대인 사회진화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논리를 전복하는 전략을 반복해서 구사한다.

위의 구절들에서는 단편적으로 이광수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토지』 12권 6장 「민족개조론」에서는 민족개조론과 이광수의 문학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2권 6장을 통해 박경리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어떻게 다시 읽고 있으며 이광수를 어떻게 재조명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이상현, 송장환, 윤광오는 썰리관 심의 집에서 이광수의 행보와 민족개조론을 두고 대화를 나눈다. 이상현은 『토지』의 주요등장인물 중 한명인데, 박경리는 의도적으로 이상현을 이광수와 자주 연관 지어 서술한다.

가령, 9권에서 이상현이 일본 유학 당시 사귀 친구 전윤경과 기생집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전윤경은 상현을 두고 ‘장차 이 모씨보다 유명한 소설을 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9:35)이러한 배치는 소설가로서의 이광수와 이상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읽도록 독자의 독서를 유도한다. 이상현은 독립투사 이동진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항일운동에 기대와 신뢰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강렬한 도피욕을 가진 탠디스트로 형상화된다. 이상현은 사회와의 결혼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식게 된다. 이상현의 주변사람들은 감옥에 잡혀가거나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지만, 이상현은 그 모든 사태로부터 몸을 피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상현은 1921년 기생 기화와의 연애를 소재로 삼아 『혈벗은 나무 밑에서』 라는 소설을 출판한다.

『토지』에서 소설가로서의 활동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진 인물은 바로 이상현이다. 따라서 12권 6장은 민족개조론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지만, 소설가로서 이상현이 문학에 대한 입장과 이광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장이기도 하다. 상현은 ‘우국지론, 혁명 얘기’를 지겨워하고 ‘소설가다 예술가다 하면 ‘전신에 진땀물이 달라붙는 느낌’을 받으며, 이야기꾼도 되기 싫고 ‘누구처럼 설교하는 소설도 싫’다고 말하는 인물이다.(12:188) 계몽과 설교의 도구로서 문학이 기능하는 것에 회의적인 이상현은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낫다고 평한다. 그런 이상현을 향해, 묵당 손유진은 이광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묵당은 『토지』에서 서양철학에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석학이자 지조 높은 선비로 묘사되는 인물이다. 이상현은 이광수는 훌륭한 소설가임엔 틀림없으나, 자신은 이광수의 소설이 설교와 계몽에 치우쳐 진실을 가리고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설교자의 옷을 늘 입고 있어서 진실이 가려져버렸다는 느낌 때문에 싫습니다.”

“음.”

“그런 의상은 성직자나 교직자의 것으로서, 저는 그 옷을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편의 문학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중략)

“물론 진리와 진실은 다르겠습니다만 문학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광수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글쎄…… 문학보다 소설의 경우를 말한다면 소설은 구체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요. 종교가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귀납시키든지 철학이 인간에게 사상적 지침을 제시한다든지, 교육이 사회에 적응하게끔 인간을 훈련하고 지식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진리로, 방편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범주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면 소설은?”

“이것 참, 땀 빼겠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와는 반대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것에 인간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모든 것은 그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는 데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학의 입장 아닐까요? 물론 작가가 만드는 것은 선택이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공식이 있을 수 없지만.”

“이광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소설을 타고난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를 폐기 위한 문학으로 역부족 아닐까? 설교가 눈에 띄는 것은 불쾌하니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네. 나보고 공박하는 거 아니니까.”

“이선생님께서도 계몽문학을 반대하신다, 그 말씀인데 우리 민족이 처한 이런 시기엔,”(12:199-201)

이상현은 종교, 교육, 철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해왔으나, 문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편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상현이 생각하기에, 소설은 추상적인 진리로 인간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여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현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는 문학론은 작가 박경리가 『토지』를 통해 실천한 문학창작방법이기도 하다. 박경리가 『토지』를 통해서 창조해낸 수많은 구체적인 개인들의 생동하는 삶은 이상현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문학’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상현의 이광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박경리의 문학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뒤이어 이상현과 목당, 윤광오의 대화는 문학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논쟁으로 흘러간다. 이상현은 이광수가 ‘문학과 운동(반일사상)을 양립시키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생각해보아. 그 약점을 애인이 찌른 거야.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이 다 뭐다 하고 시시한 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그가 어째서 한때 영웅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지. 그의 문학과 그의 반일 사상 그 두 가지가 합친 때문이라는 걸. 그 야심가, 명성의 노예는 양자 중에 보다 유리한 것을 택하였고 그러고도 연연하여 자기 문학에다 애매모호한 것을 풀칠해서 붙이고 있는 거야. 두 가지를 다 갖고 싶겠지만 두 가지를 다 잃는 결과는 아니 될지. 그는 약한 사람 같다. 두 가지를 다 해낼 뜨거운 피, 강인한 의지가 없었을 게야. 글은 칼이 될 수 있는 거고 꽃도 될 수 있는 건데 칼은 무디어졌고 꽃은 종이꽃이 되고, 그래서 괴상 망칙한 「민족개조론」 같은 것도 튀어나오게 된 거지. 나는 독자의 입장에서,”

잘 나가다가 상현은 기어이 자기 위치를 설명하려 든다. 그는 자신이 빛인가를 깨닫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랑 때문에 변절했다, 그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윤광오 말이었고 수앵은,

“그렇담 참 추악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명성이든 다 같다. 그러나 여자보다 명성의 집념이 더 강한
게야.”

묵당은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 성토 대회군요. 그 민족개조주의자는 민족개조가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작은 자신의 생명을 고귀한 사
업에 바치겠다 했는데 조금은 동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허 참, 송선생님의 그 호인풍이 또 나옵니다? 친일과 거두들도 조선의
자치제를 들고 나오는 용맹함을 보였는데 반일작가 이광수가 고작 한다
는 게 꼬리도 대가리도 없는 유령 같은 개조론으로 왜놈을 안심시킨 그
따위 행위, 동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소설이나 쓰지, 문
화유산이나 되게요.” (12;205-207)

이상현이 보기에 이광수는 문학과 반일사상을 결합한 활동을 펼쳐서
영웅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명성의 노예였기에 그 두 가지를 다 잃게 되
었다. 이상현에 의하면, 민족개조론은 칼의 문학(반일사상)과 꽃의 문학
(예술)을 함께 추구하다가 그 모두를 잃어버린 괴상망칙한 결과물이다.
이상현의 관점을 통해 이광수는 명성을 추구하다가 사상과 예술의 올바
른 결합에 실패한 문학인으로서 표상된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이광수를 동정할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고
묻는 송장환의 의견을 반박하는 인물은 윤광오다. 윤광오는 동경에서 공
부하다가 관동진재를 겪고 돌아왔으며, 심수앵과 결혼한 인물이다. 이광
수의 영웅시절을 소상히 알고, 그를 숭배하고 동경한 적도 있었던 윤광오
는 이광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윤광오는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영
국식 식민지 지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본의 지배를 용납하겠
다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한다. 윤광오는 이광수가 표면적으로는 ‘반
일작가’인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체없는 민족

개조를 주장했다고 꼬집는다. 윤광오는 묵당에게 민족개조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이에 대해 묵당은 민족개조론이 너절한 줄문이자 자랑이며, 모순을 숨겨 사납게 엮여놓은 글이라고 비판한다.

박경리가 이상현, 윤광오, 묵당의 대화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노정하고 있는 모순이다. 박경리는 표면적으로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광수의 논리적 모순을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가시화한다. 그렇다면 이광수의 비교쌍으로 거론되는 이상현은 어떠한 소설가로 형상화되고 있는가. 이상현은 정치권력에 편승하지 않지만 그에 저항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예술을 위한 예술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상현에게 문학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와의 싸우는 일종의 ‘방패’로 인식되는데, 상현은 문학에 생애를 걸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모멸 사이에서 방향을 거듭한다.(10;55-57) 상현은 이광수의 계몽문학을 비판하지만, 그 대안이 될 만한 문학을 창작하지 못한다.

가족, 조국, 연인 관계에서 오는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도피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상현은, 12권에 이르러 기화에 대해 느끼던 자신의 감정들, 즉 동정, 바람기, 수치심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원고료를 양현의 양육비로 써달라고 명희에게 부탁하게 된다. 술값을 벌기 위해 소설을 쓰던 상현은, 기화와 양현에 대한 사랑을 자각한 뒤에는 양현의 양육비를 위해 소설 창작을 지속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명성’을 택한 이광수와 ‘사랑’을 택한 이상현은 다시 한 번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이상현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 이상현의 몰락은 그의 자식들에게 이상현 개인의 온전한 잘못으로 받아들여진다. 가령, 이상현의 둘째 아들 민우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기는커녕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고 분노 섞인 어조로 비난한다. 그는 아버지의 소설을 기생과의 연애이야기를 쓴 ‘소설 나부랭이’라고 비하한다.(16;232) 이상현의 딸 양현 역시 아버지의 책임감 없는 연애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것이라 생각한다(18:39) 그러나 명희의 입장은 다르다. 명희는 양현을 향해 상현의 삶을 ‘운명적인 불운’ 이자 ‘일본의 침략으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겪어야 했던 일’이라고 변호한다. 명희는 상현의 몰락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고, 상현을 “이 시대의 희생자”로 규정한다. 이처럼 『토지』에 나타난 등장인물간의 시각의 차이는 독자로 하여금 식민지 시기 문학인의 행보에 대한 가치평가의 장을 열어둔다.

상현은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소설가로서 성공하지도 못하지만 박경리는 이러한 상현의 삶을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그려내지 않는다. 『토지』 마지막 권에서 이루어진 이상현의 삶에 대한 회고적 서술에는 오히려 이상현에 대한 연민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

주정뱅이 이상현, 결국 그가 도달한 것은 자신이 낙오자라는 인식이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를 편안하게 했다. 모든 불꽃은 다 꺼져버렸고 갈등과 고뇌와 자책감은 가라앉았으며 차디찬 공간에다 이상현이라는 한 사내, 한 피폐한 사내를 놓았을 때 상현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었고 그 객관화한 자신을 통하여 타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현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 향한 새로운 인식, 출발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것은 나이 탓이었는지 모른다. 기질 탓이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는 현재에서 미래의 시간을 달아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그 시간 속에 흘러간 사물, 그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기록하는 행위로서 시작하는 출발점, 그의 기억은 보물의 창고였다.(20:13-14)

상현은 하얼빈 뒷골목을 배회하는 주정뱅이가 되어, 낙오자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한다. 자기를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상현의 내면은 쓸쓸하고 고요하다. 미래의 시간을 달아버린 이상현은 대신 과거의 ‘기억’이라는

‘보물의 창고’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경리는 현실과의 대결에서 실패한 이상현에게 기억을 ‘기록하는 행위’로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박경리는 이상현의 성공적인 재기를 그려내지 않음으로써, 이 가능성을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만 남겨두었다.

4. 자유를 향한 글쓰기와 문학소녀의 성장

박경리가 그려낸 허구의 문인 임명빈과 이상현은 의지를 무력화하는 식민지의 시간을 문학으로 극복하지 못했다.¹⁷⁾ 임명빈은 문학 자체를 포기했고, 이상현은 소설가로서 문학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박경리는 이 인지와 이광수를 통해서 제국주의 권력과 문학의 공모를 보여주는 한편, 임명빈과 이상현의 실패를 통해서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적인 문학적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억압을 가시화한다. 네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박경리는 문학이 제국주의 권력과 공모하여 추상적인 문명개화담론, 계몽주의적 담론, 사회진화론을 담아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을 반복적으로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와 담합한 지식체계를 전복할 수 있는 대항담론의 구축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항담론을 문학적 실천으로까지 이끌어간 조선인 문학자는 『토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박경리는 탈식민적 문학을 이상적으로 성취해내는 허구의 문학자를 그려내기보다는 문학자들이 놓여있던 식민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17) 삼일운동 이후 지식인의 실존적 고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일제의 문화정치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식민지의 모순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더욱 공고해지는 식민 지배의 억압적 현실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의 다소 무책임한 실존적 고민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박상민, 『『토지』와 삼일운동』 『한국근대문학연구』, 20(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22면.

보여주는 길을 선택했다. 궁극적으로 박경리가 식민지 문인 표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문학을 도구화(이인직, 이광수)하거나 불가능(임명빈, 이상현)하게 하는 제국주의의 억압이었다.

다만, 박경리는 작가 자신을 닮은 문학소녀 ‘상의’를 통해 식민지 규율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글쓰기의 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흥이와 허보연의 딸인 상의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임명빈·이상현의 세대와 성장배경이 다른 새로운 세대에 속한다. 상의는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만주에서 성장했지만, 조선으로 압송된 부모를 뒤쫓아 통영의 외가로 와서, 진주의 ES여학교에 다니게 된다. 상의의 이러한 이력은 통영에서 성장하여 진주여고(옛 일신여고보)를 다녔던 박경리의 이력을 또렷하게 연상시킨다.

상의는 내성적이고 병약해 보이고 책을 많이 읽는 여학생으로, 신경에서 부모가 압송되는 것을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명랑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상의는 독서를 통해 변하게 된다. 외삼촌 허삼화의 서가에 있는 책을 읽으며 독서를 시작하게 된 상의는 차츰 독서 범위를 넓히면서 “반항의 정열”을 불태우게 되고 “여자 혁명가를 꿈꾸게” 된다.(18;210) 독서를 즐기는 상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문학소녀로 불린다. 그러나 상의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과 기숙사 생활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린다. 상의는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자습 시간 또 무엇 무엇 하는 시간”마다 울리는 기숙사 종소리에 공포감을 느꼈다. (18;254) 박경리는 상의가 우울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유법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서술해두었다.

상의의 피병은 정확하게 짜여진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어느 한 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우울증에 대한 치유법이였다. 그는 수없이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 (중략) 삼 학년으로 올라오면서 피병의 도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의는 가끔 피병을 앓는다.

그러나 전과 같이 소설을 탐독하지는 않았고 대신 글을 썼다. 상의가 제일 욕심을 내는 것은 노트였고 그는 상당히 질 좋은 노트를 많이 구해다녔다.

운동장에서는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들어간 것 같았다. 정적, 마음 밑바닥까지 맑은 공기가 스며들어오는 것만 같은 고요, 상의는 어떤 희열을 느낀다.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가버린 것이 아닌 시간, 심장의 고동같이 시간은 상의 곁에 있는 것이다. 상의는 천천히 노트를 꺼내어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는 빨간 잉크로 쓴 글씨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일부러 빨간 잉크로 글을 쓰겠다, 걱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 검은 잉크가 바닥이 났고 해서 할 수 없이 붉은 잉크로 썼는데 이제는 그대로 붉은 잉크로 글을 쓰는 것이다. 이 노트는 상의의 보물이었다. 물품검사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돌면 상의는 노트를 신문지에 싸서 아궁이 속에 숨겨놓고 학교에 가곤 했다. (중략)상의는 펜에다 붉은 잉크를 찍어서 노트에 어제는, 하고 썼다. 어제, 강가 풍경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옥봉(玉峯)을 비 맞으며 지나올 때 우산으로 몸을 감추고 서 있는 소녀가 있었다. 대열이 술렁거렸다. 그는 얼마 전까지 학교의 급사였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권번(券番)에 들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소녀는 우산으로 몸을 가린 채 담벽에 붙어 서서 행렬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옥봉은 기생집이 많은 곳이다. 학생들은 비를 맞고 걸으면서 가없다는 말들을 속삭였다.

상의는 한참 써내려가다가 그 이상하고도 불길한 검은 행렬이 눈앞에 떠올랐다. 동시에 붉은 잉크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비치었다.(18:254-255)

상의는 피병으로 결석을 감행하는데, 이것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상의는 그렇게 확보한 소중한 시간에 강가로 가서 학교의 급사였다가 권번이 된 소녀가 서 있는 스산한 풍경을 보게 된다. 상의는 그

풍경을 회상하며 붉은 잉크로 글을 써내려간다. 여기서 붉은 잉크는 상의가 독서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반항의 정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의에게 글쓰기는 주체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의의 글쓰기는 ‘편지쓰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의는 일본인 학생 호시노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S맏기 편지를 쓰게 된다. 그러나 상의의 편지쓰기는 식민지 규율권력 앞에서 좌절된다. 상의는 그 편지로 인해 교사에게 혼나게 되고 반성문 쓰기를 강요받는다. 상의는 반성문 쓰기를 거부하고 복도에서 벌을 받으면서 “자유를 저해하고 순결을 더럽히는 조직의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몸을 떨며 “시간의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을 염원한다. (20;287)

박경리는 규칙과 상벌의 체계로 빈틈없이 짜인 상의의 학교 기숙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나가면서 억압적인 식민지 규율권력의 작동방식을 보여준다. 규율의 틈새에서 위태롭게 수행되는 상의의 글쓰기는 식민지 규율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한 실천으로 그려진다. 상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이상현이 추구했던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자유와 대조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유에 가깝다. 박경리는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문학의 실제 사례로 기타무라 도코쿠를 거론한 적이 있다.

“짧어서 죽었으니까 그의 문학이나 사상은 무르익지 못했지만 싹치고는 아주 큰 싹이었다구. 영탄조의 다카야마 초규나 호라후키의 쓰치이 반스이, 그것 다 꺾테기야. 도코쿠 같은 사람이 그나마 일본의 심지라 할 수 있고 인간과 자유를 주장하며 고뇌한 그를, 낭만파 영역에 머물렀지만 높이 평가돼야 해.”

그 말에는 오가타도 동의했다. 다카야마 초규, 쓰치이 반스이(土井晩翫)는 다 같이 널리 회자된 명치시대의 문인이다. 그들은 다 같이 낭만파

라기보다 감상파에 속하는 미문가로서 니체에 심취한 초규나 설익은 관념의 나열을 즐기는 반스이, 그들은 의기상투한 일본주의(日本主義), 국가지상주의자로서 당시 지배계급의 대변가라 할 수 있었다. 무라카미에 대한 오가타의 무의식적인 추적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에 대한 추적이기도 했다. 일본인은 어떤 자인가! 그것은 오가타의 괴로운 과제였는지 모른다. 철저한 자유주의, 연애의 신성, 개성의 자각과 확립을 주장했던 도코쿠 같은 사람, 칭교도적이며 심한 결벽증에 섬세한 미의식, 사이교의 유랑(流浪), 그런 소수의 정신주의자들이 가늘고 가냘프지만 일본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심지가 되어주었다. 오가타는 몹시 그것을 인정하고 싶었다(15;487-488)

박경리는 일본인 오가타의 시선을 통해 국가권력의 대변자로 활동했던 다카야마 초규와 쓰치이 반스이를 ‘국가권력의 대변자’이자 ‘일본문학의 껍데기’로 규정하는 한편, 철저한 자유주의자로 개성의 자각과 확립을 주장했던 기타무라 도코쿠를 일본문학의 심지로서 규정한다. 기타무라 도코쿠는 메이지 전제 정부에 대항하여 자유민권운동에 참가한 문학자로, 민중의 입장에서서 정치와 문학의 문제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자유민권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운동의 퇴조기에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민중을 기반으로 한 사상을 전개한 문학자로 알려져 있다.¹⁸⁾

허구의 인물 상의와 실존했던 문학자 기타무라 도코쿠를 통해서, 박경리는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자유를 모색하는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의의 서사는 박경리의 자전적인 모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작품 전체와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26년에 태어나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박경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짚으며 그것을 재현해내

18) 허배관, 「어느 일본 근대 작가의 민중관 고찰-기타무라 도코쿠의 생애와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10(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5, 194면.

고 있다는 점에서 상의의 서사는 의미가 깊다. 호미 바바는 프란츠 파농의 저서를 분석하면서, '기억이란 결코 성찰과 회고의 고요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재구성이며, 현재의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체된 과거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라고 썼다.¹⁹⁾ 상의의 서사는 박경리가 자기의 역사를 『토지』의 서사 속에 녹여낸 '고통스러운 기억하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상의의 서사는 한편으로 박경리가 식민지 이후에 왜 다시 식민지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써야만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인직과 이광수에 대한 서술에서 볼 수 있듯, 박경리는 자국의 문학이 식민 권력에 종속되거나 식민권력에 의해 좌절되었던 치욕스러운 흔적들을 집요하게 되살려내고 들춰낸다. 릴라 간디는 식민 유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포스트 식민 민족국가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식민 종속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리려는 욕구를 포스트식민적 기억 상실의 징후라고 비판했다.²⁰⁾ 박경리는 이러한 기억상실을 거부하며 제국주의 권력과의 공모로 얼룩진 신소설의 출발점과 근대소설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들의 일그러진 표상은 『토지』의 방대한 서사를 추동해간 동력 중의 하나가 망각에 저항하려는 의지이자 치욕을 기억하려는 의지였음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토지』에 나타난 식민지 문인의 표상을 살펴보고, 박경리가 제국주의와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했는지 고찰해보았다. 박경리는 실존했던 문인과 허구의 문인을 대위법적으로 배치하여 식민지 시기의 권력과 문학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보여주었다. 박경리는 이인직과 이광

19)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139면.

20) 릴라 간디, 앞의 책, 16면.

수를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등장인물 간의 대화 속에 거론되게 만들어 그들의 삶과 문학을 심문한다. 이러한 창작방법을 통해 이인직과 이광수가 전개했던 문명개화담론은 강자의 권력에 편승한 문인의 비겁한 산물로서 재독된다. 박경리는 제국주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지식들, 즉 사회진화론, 계몽주의, 군국주의, 근대중심주의, 문명개화론 등을 등장인물이나 작중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반복해서 논박해나간다. 한편 박경리는 식민지라는 쇠사슬에 묶여 무기력해진 문인의 모습을 문청 임명빈과 소설가 이상현을 통해 보여준다. 이상현은 계몽문학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소설을 창작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박경리가 긍정적인 글쓰기의 사례로 제시한 것은 기타무라 도코쿠와 상의의 글쓰기다. 기타무라 도코쿠는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고, 상의는 근대적 규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를 탈출하여 글을 쓴다. 박경리는 작가 자신을 닮은 문학소녀가 독서와 습작을 통해 문학과 만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문학을 통한 상의의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 박경리가 추구한 이상적인 문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박경리는 상의를 통해 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문학의 역할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경리는 실존했던 문인들의 이름과 작품을 서사 속으로 끌어 들여 허구의 인물들과 함께 재배치한 후, 식민지 문학사에 대한 비판적인 다시 읽기를 수행했다. 식민지 문인과 관련된 서술을 모아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동력 중 하나가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치욕을 기억하고 망각에 저항하려는 의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시 읽기 작업을 통해 박경리는 문학이 추상적인 담론을 전달하는 방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는 장(場)이며, 문학자의 역할은 지배담론으로 인간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담론에 대항하여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토지』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제국주의와 문학에 관한 박경리의 견해를 이인직과 이광수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본 것이다. 다만, 문명개화담론과 연관된 문인들의 표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형상화된 조선의 사회주의 문학자와 여성 문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인 문학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본 문인과의 비교나 당대 지식 담론과의 비교는 깊이 있게 수행하지 못했다. 박경리의 탈식민적 문학론은 본고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토지』(1~20), 마로니에박스, 2012.

2. 단행본

릴라 간디 저,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박경리,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2003.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21.

이미화, 『박경리 토지와 탈식민적 페미니즘』, 푸른사상, 2012.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3. 논문

권은미, 「박경리 『토지』의 탈식민적 양상 연구 —소설적 형상화와 그 양가성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용의, 「박경리의 토지와 일본인식 『토지』에 등장하는 일본 문학자」, 『일본어문학』 51, 한국일본어문학회, 2011, 305-324면.

김은경,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굴절의 원리와 인물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 연구』 35,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306-338면.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일본론」, 『현대문학의 연구』 24, 현대문학연구회, 2004.11, 77-122면.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16(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271-319면.

박상민, 「『토지』와 삼일운동」 『한국근대문학연구』, 20(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7-36면.

박혜원, 「박경리 『土地』의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혜원, 「박경리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土地』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보』 2, 구보학회, 2007, 319-336면.

유봉희,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부산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1.

이상진, 「박경리의 『土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상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토지속의 일본, 일본인, 일본론」, 『현대소설연구』

-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4, 409-445면.
- 이정숙, 『『토지』에 나타난 일본』,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237-274면.
- 최유희, 「노동과 직업을 중심으로 본 『토지』의 여성 인물」,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2004, 261-295면.
- 최지선,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존재방식과 욕망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 관비유학 이전 행적과 『都新聞』 소재 글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0, 2006, 현대소설학회, 7-30면.
- 허배관, 「어느 일본 근대 작가의 민중관 고찰-기타무라 도코쿠의 생애와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과종교』10(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5, 193-210면.

<Abstract>

Representations of Colonial Writers in *Land* and Clues for Postcolonial Literary Theory

–Focusing on the Descriptions of Lee In-jik and Lee Gwang-su

Jung, Sil-vi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epresentations of colonial writers depicted in *Land* to uncover clues on how Pak Kyong-ni con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erialism and literature. Through the fates of both real historical figures like Lee In-jik and Lee Gwang-su, and fictional characters like Im Myung-bin and Lee Sang-hyeon, Pak Kyong-ni guides readers to contemplate this relationship. Firstly, Pak Kyong-ni juxtaposes Lee In-jik with the literary youth Im Myung-bin, critiquing Lee In-jik's unoriginal imitation in literature while simultaneously criticizing Im Myung-bin's ineffectuality, which fails even to achieve such imitation. Additionally, through the characters' dialogues, Pak Kyong-ni reevaluates Lee Gwang-su's theory of national reform, revealing it as a contradictory discourse that ostensibly resisted the empire but effectively compromised with it. Lee Gwang-su is contrasted with the novelist Lee Sang-hyeon, and through Lee Sang-hyeon's escapist dandyism, the enlightening aspect of Lee Gwang-su's literature is criticized. However, Lee Sang-hyeon fails to create literature that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enlightenment literature, ultimately becoming a drunken failure.

Through Lee In-jik and Lee Gwang-su, Pak Kyong-ni exposes the collusion between imperial power and literature, while the failures of Im

Myung-bin and Lee Sang-hyeon highlight the oppressive colonial system that makes independent literary practice by colonial intellectuals impossible. Nevertheless, Pak Kyong-ni does not deny the potential for literature to transcend imperialism. In *Land*, she presents a cyclical view of history through the voices of characters and narrator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counter-discourse that could overturn the social Darwinism underpinning imperialism. Furthermore, through the literary girl "Sang-ui," a character resembling herself, Pak Kyong-ni illustrates an example of writing that seeks freedom by escaping colonial disciplinary power. Through the literary girl's practice of writing, Pak Kyong-ni embeds the potential for literature that does not collaborate with imperialism.

Key words: Imperialism, Colonial writers, Social evolution theory, Theory of national reform, New Novel(Sinsoseol)

투 고 일: 2024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